

숲·차·향기 가득...장흥군, ‘웰니스 관광’ 메카 발돋움

신체·정신적 균형 회복하는 체류형 여행
편백숲우드랜드·마음건강치유센터 인프라
전통 발효차 청태전·아로마테라피도 인기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면서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장흥군이 숲, 전통차, 향기 등 지역 고유 치유 자원을 집대성한 ‘웰니스(Wellness) 관광’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13일 장흥군에 따르면 웰니스 관광은 단순 볼거리 위주의 유흥을 넘어 치유와 명상, 건강관리를 통해 신체·정신적 균형을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 체류형 여행을 뜻한다.

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를 비롯해 전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 청태전, 힐링테라피센터 등 다채로운 특색을 살린 웰니스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가을 장흥 웰니스 여정의 첫 관문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수 십년생 편백나무들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맞으며 울창한 숲길을 걷다 보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진다.



장흥군이 숲·차·향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 최적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사진은 장흥 정남진 편백숲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 <장흥군 제공>

특히 붉은 단풍과 편백숲의 짙은 푸르름이 조화를 이루는 가을철 우드랜드는 가족, 연인과 함께 자연이 내어주는 고요함을 만끽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휴식 공간이다.

자연의 기운으로 몸의 긴장을 풀었다면 전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에서 스트레스와 우울감, 정서적 피로를 해소한다.

이곳은 휴식과 회복을 돕는 전문 치유 공간으

로 방문객들은 맞춤형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스스로를 돌보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신체 건강 못지않게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숲속 휴양과 체계적인 심리치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은 장흥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이다.

장흥의 전통 발효차인 청태전과 향기를 통한 아로마테라피는 웰니스 여행의 품격을 끌어올린다. 장흥 청정 자연에서 자란 야생 녹차를 발효해 동전 모양으로 빚은 청태전은 오랜 시간 지역민의 삶과 함께해 온 고유의 차 문화다. 힐링 테라피센터의 아로마테라피는 은은한 천연 향기로 굳어있던 심신을 부드럽게 이완시킨다.

군은 숲, 마음건강, 전통차, 향기 치유 등 자원들을 엮어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 생태계를 지속 확장할 계획이다.

단편적인 명소 둘러보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행자가 머무는 동안 잃어버린 건강과 일상을 되찾는 명품 치유 중심으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장흥은 편백숲을 비롯한 빼어난 자연환경과 선조들의 지혜가 깃든 전통차 문화, 마음건강 치유 자원을 두루 갖춘 명실상부한 웰니스 관광지”라며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장흥을 찾는 모든 관광객이 충분히 쉬고 스스로를 돌보는 힐링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추천했다.

/정홍=노형록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보성군 골목상권에 활력

지난달 첫 지급 12일 만에 63억원 사용
1인당 40만원 지급...생활비 80% 집중
김철우 군수 “소비처 발굴·유통망 확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이 도입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 초기부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3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이후 불과 12일 만에 총 15만8천999건, 약 63억원의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첫 지급액인 124억4천500만원의 절반(6

0.6%)을 넘어서는 수치다.

앞서 군은 지급 대상자 3만1천114명에게 7·8월분 농어촌 기본소득을 1인당 40만원씩 지역화폐(카드형·선불카드)로 지급했다.

보성·별교읍 등 2개 읍에서 약 39억원이 사용됐다. 나머지 10개 면 지역에서는 약 24억원이 소비됐다.

전체 가맹점(1천800개소)의 29%만이 10개 면 지역에 분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용액의 38.1%가 결제되며 골목상권 부양 효과를 입증했다.

기본소득 효과에 힘입어 가맹점 가입도 늘고 있다. 가맹점은 지난 6월 말 1천448개소에서 2개월여 만에 24.3%(352개소)나 증가했다.

특히 농약·비료, 주유·난방, 병원·약국을 포함한 생활 밀접 5개 분야에 전체 소비의 80%가 집중됐다.

군은 10개 면 주민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성읍과 별교읍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화폐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병원·약국·학원 등 필수 업종만 월별 한도액 내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맞춤형 안전장치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을 동시에 이끄는 핵심 정책”이라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비처 발굴과 유통망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보성=임병언 기자



구례소방, 하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 실시

구례소방서는 13일 “최근 2026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전술훈련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방전술훈련 평가는 외근 부서 출동대원을 대상으로 재난현장 실전 상황에 대비한 숙련도 향상을 점검한다.

화재 분야와 구조 분야에서는 방화문 개방 훈련을, 구급 분야에서는 응급처치 팀 전술 능력을 중점 평가한다.

올해 평가에는 동력절단기를 활용해 방화문

을 개방, 연기차단커튼 설치 후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내부 온도를 측정하는 평가를 실시해 현장 대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사진> 한만조 구례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인명 구조는 평소 체득한 전술과 견고한 팀워크에서 나온다”며 “실전 중심 지속 훈련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순천시, 가로등·보안등 3만여개 점검·보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는 13일 “오는 23일까지 가로등과 보안등 총 3만834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보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통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요 간선 도로와 주요 관문 도로는 물론, 전통시장 주변, 우범 지역, 농촌마을 등이다.

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전문 유지보수 업체를 투입한다.

야간 점등 상태는 물론, 누전 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노후 부품 상태 등을 살피고 결함 발견 시실물은 현장에서 보수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민원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도로 생활민원 비상근무반도 편성한다.

/주성학 기자

화순군, 농가 벼 병해충 선제 방제 당부

벼멸구·깨씨무늬병 확산 우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은 13일 “벼 출수 후 고온다습한 날씨가 장기간 이어져 벼 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한 예찰과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이어진 무더위와 습한 기후로 인해 비래해충의 번식 주기가 짧아져 개체 수가 급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

벼멸구는 벼대 아래부분에 주로 서식해 겉모습만으로는 초기 발견이 어렵다. 방제 시기를 놓쳐 밀도가 높아지면 벼가 하얗게 말라 죽는

집단 고사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벼대 밑동을 확인하는 예찰이 필수적이다.

또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번져 지난해 피해가 컸던 깨씨무늬병도 올해 곳곳에서 관찰돼 전용 등록 약제(아족시스트로빈 등)를 활용한 신속한 방제가 요구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속 현장 예찰과 기술 지원을 통해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최은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동 방제를 마쳤더라도 눈을 수시로 살펴 병해충 밀도를 확인하고 필요시 반드시 추가 방제를 해야 한다”며 “수확기까지 꼼꼼한 관리로 대규모 피해를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농가를 방문해 벼 병해충 기술 지원과 현장 예찰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막는 데 농가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담양군, 군민·학생 대상 맞춤형 정원교육 확대

국립정원문화원 협력 전문가·해설가 양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13일 “2026년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해 군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원 교육을 확대하고 2027년 남도정원비엔날레에 대비한 정원 해설 인력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업은 국립정원문화원과 협력해 ▲정원 전문가 양성 ▲학교 교과과정 연계 교육 ▲정원 해설가 양성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

군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군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총 62시간의 정원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생태순환형 정원 설계 등 이론과 식재, 정경 등 현장 실습이 병행되며 남은 일정에 한해 관

심 있는 군민의 추가 참여도 가능하다.

또한 교육청 등과 협의해 유치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생태전환 교육 방향에 맞춘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에는 2027년 남도정원비엔날레 방문객에게 담양의 역사와 정원 문화를 알릴 핵심 인력인 정원 해설가 양성 과정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김은주 산림정원과장은 “정원 자원을 교육과 연결해 군민의 전문성을 키우고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것”이라며 “해설 인력 도 선제적으로 양성해 담양의 정원 문화를 널리 알리는 기반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성교육청, 교육감기 육상경기대회 종합 2위

금 5·銀 2·銅 6 총 13개 메달 획득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장성교육지원청은 13일 “최근 여수 망마경기장에서 열린 제36회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에서 C그룹 종합 2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사진> 대회에서 장성교육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6개 등 총 1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초등부에서도 C그룹 2위에 올랐다.

초등부에서 장성중앙초 박하람·이라임(80m), 송혜인(100m), ITGEL(800m), 김예지(공던지기)가 각각 금메달을 휩쓸었다. 박재민(80

m)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중등부에서는 장성여중 변다현(멀리뛰기)과 장성남중 정수인(포환던지기)이 은메달을 따냈다.

장성여중 김윤서(400m), 장성중 최형준(200m), 삼서중 추희영(400m)은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삼계중 김승준은 800·1천500m 2종목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장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선수들이 기량을 맘껏 펼치고 값진 성과를 일궈냈다고”며 “육상 꿈나무들이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학교 체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